

## 조용히 보내는 연말연시를 위한 공동 메시지

### 올해의 연말연시는

- '평소에 함께 지내는 분'과 '가정'에서 보냅니다.
- '평소에 함께 지내지 않는 분'과의 '회식은 삼갑시다'.

예년 같으면 연말연시는 평소에 떨어져 지내는 가족과 친척, 친구가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리스크의 관점에서 보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본인이 감염된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연말연시에 귀성을 하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중에 감염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의료제공 체제에 과부하가 걸려있는 와중에 예년처럼 많은 의료기관들이 진료를 쉬는 연말연시에 현재 이상으로 의료기관 등의 부담이 증가한다면, 통상적인 진료와 응급구조를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의료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도민 여러분과 도내에 체류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증상이 없을지라도 '감염 되었을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1 월 3 일까지는 조용히 연말연시를 보내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 년 12 월 24 일

홋카이도지사 스즈키 나옴이치  
삿포로시장 아키토 가쓰히로  
홋카이도시장회장 야마구치 고타로  
홋카이도정촌회장 다나노 다카오